

# 뜨거운 커피 사랑...韓 커피점 매출 美·中 이어 '세계 3위'

성인당 연간 353잔 마셔...세계 평균 132잔 3배 달해  
KB研 "가격경쟁력 매장-고급 커피매장 늘어날 것"



우리나라 국민의 커피 사랑은 뜨겁다. 성인 기준 하루 한잔 꼴로 커피를 마셔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선호하는 음료 중 커피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커피 소비가 늘면서 소비지출에서 커피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원두를 포함한 볶은 커피 수입량이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커피 시장 규모도 커졌고, 커피전문점 매출액 규모로만 보면 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커피전문점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을 발표했다.

◇성인, 커피 연 353잔 마셔...매출액 규모 韓 '세계 3위'

커피 소비가 대중화되면서 한국의 성인 기준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지난해 353잔으로 세계 평균 132잔의 3배 수준이었다.

커피 소비가 늘면서 커피 수입도 매년 크게 증가했다. 원두를 포함한 볶은 커피 수입량은 지난 2012년 5400톤에서 지난해 1만3300톤으로 늘었다. 매년 평균 13% 넘게 증가하는 추세다.

가구당 소비지출에서 커피 관련 지출은 지난 2014년 월 7997원에서 지난해 1만5815원으로 5년 사이 2배가량 늘었다. 특히 1인 가구의 커피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1인 가구의 커피 관련 소비지출액은 2014년 월 4473원에서 지난해 1만 3012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가구원수별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커피전문점 매출액은 지난 2007년 3억달러 규모에서 지난해 43억달러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매출액 규모로만 보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성인, 음료 중 커피 가장 선호...3040 선호도 가장 높아

성인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는 커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39.6%가 커피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과일주스(10.4%), 흰우유(9.6%) 등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다.

커피에 대한 선호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커피를 가장 선호한다는 남성의 비중은 39.5%, 여성의 경우 39.8%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의 커피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30대, 40대 공히 44.9%가 커피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는



△20대 36.5% △50대 39.4% △60대 이상 31.7%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커피전문점 선택 요인으로 커피의 맛이 6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장의 접근성(51.2%) △커피가격(48.8%) 등의 순이었다. 반면 △매장 분위기(37.0%) △할인 혜택(33.3%) △커피 브랜드

(29.3%) △다양한 커피의 종류(24.8%) 등은 덜 고려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53.5%는 습관처럼 커피를 마신다고도 응답했다. 주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오전 9시~정오(45.2%), 정오~오후 2시(38.1%)였다.

뉴스1

## 커피전문점 2곳 중 1곳 3년내 문닫아... '이디야' 매장수 1위

연도별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상위 10개 브랜드

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브랜드명	가맹점수	브랜드명	가맹점수	브랜드명	가맹점수	브랜드명	가맹점수
1	이디야커피	1577	이디야커피	1865	이디야커피	2142	이디야커피	2399
2	카페베네	821	요거프레소	792	투썸플레이스	887	투썸플레이스	1001
3	엔제리너스	813	투썸플레이스	749	요거프레소	755	요거프레소	705
4	요거프레소	768	엔제리너스	744	엔제리너스	647	커피에반하다	589
5	투썸플레이스	633	카페베네	681	백다방	539	백다방	571
6	커피베이	415	백다방	522	카페베네	523	엔제리너스	554
7	백다방	412	커피베이	428	커피베이	471	커피베이	539
8	알리스커피	361	알리스커피	385	커피에반하다	457	메가엠지씨커피	403
9	탐앤탐스커피	357	파스쿠찌	376	파스쿠찌	408	카페베네	354
10	파스쿠찌	353	커피에반하다	370	알리스커피	405	더벤티	282

\* 2019년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알리스커피와 파스쿠찌는 2018년 현황에서 제외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자료

커피전문점 2곳 중 1곳은 창업 후 3년 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폐업 대비 창업 매장 수가 여전히 많아 커피 매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커피전문점 현황 및 시장여건 분

폐업보다 창업 여전히 많아... "매출 경쟁 심화"

매장 11%는 적자 운영...전체 매장 수 증가 탓

석'을 발표했다. ◇커피전문점 52.6%가 3년내 폐업...창업 매장은 꾸준히 증가

지난 2008년만 해도 3000개를 넘지 않았던 커피전문점 창업은 10년만인 지난해 1만4000개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폐업 매장 수도 급증해 약 4000개에서 9000개 2배 넘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기준 폐업 매장의 52.6%는 3년을 버티지 못했다. 이런 매장 수는 2013년 1924개에서

2018년 4574개로 약 2.4배로 증가했다. 단기 폐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62.8%를 기록했다. 이어 △세종 59.3% △광주 58.6% △인천 57.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55.6%)과 경기(54.0%)는 각각 6위, 8위에 위치했다.

전체 매장의 11.0%는 적자 상태였다. 커피전문점 총매출은 2016년 7조1000억원에서 2017년 7조90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매장 수와 영업비용이 증가하면서 업체당 영업이익이 1180만원에서 1050만

원으로 감소했다. 연구소의 조사처럼 소규모 매장 창업이 늘어나며 창업 매장의 평균 면적은 지난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커피전문점 창업 매장의 평균 면적은 지난 2009년 66.9㎡에서 2013년 81.6㎡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16년 65.1㎡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소폭 늘어나 약 70㎡에 달했지만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연구소측은 설명했다.

◇'이디야' 매장수 1위...인구대비 커피매장 수 서울 중구가 가장 많아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이디야였다. 4년 연속 1위다. 이디야의 가맹점 수는 지난 2015년 1577개에서 지난해 2399개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어 △투썸플레이스(1001개) △요거프레소(705개) △커피에반하다(589개) △백다방(571개) 등이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 수는 2015년 8697개에서 2018년 12627개로 늘어 이디야 다음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대전·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이디야 매장이 가장 많았다. 시군구 기준으로 커피전문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지난 7월 기준 서울 강남구에만 1739개 매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창원 1420개 △수원 1321개 △성남 1278개 등의 순이며, 상위 10개 지역 중 6곳이 서울·경기지역이었다.

서울 중구에는 1000명당 매장 수만 8.8개에 달해 인구 대비 커피전문점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중구 7.68개 △부산 중구 6.3개 △서울 종로구 5.93개 등이 뒤를 이었다.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